

서해안 산업 벨트 활성화와 중부내륙 연결의 중심! 아산~천안고속도로 드디어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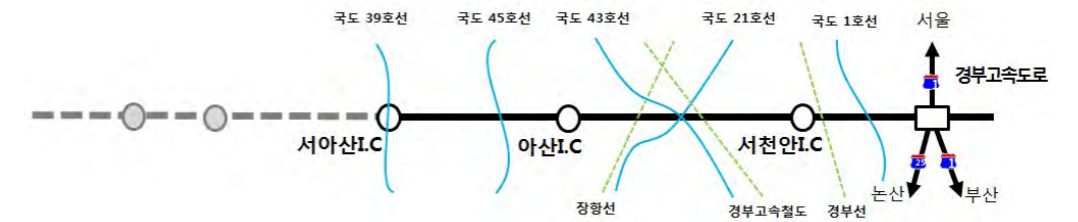
아산~천안고속도로 사업개요

충남 산업의 중심지인 천안과 아산을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2023년 9월 20일에 개통되었다. 중부 지역의 교통 및 물류 핵심 역할을 할 이 고속도로는 충남 북부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 아산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반도체 등 3,000여 개 기업의 물류 운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은 총 연장이 20.86km이며, 총사업비로 약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고속



도로는 아산·천안 지역과 청원·청주 지역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해무역·연안 항만 및 산업 벨트축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산~천안고속도로 구간은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1단계, 아산 인주에서 염치까지의 2단계, 당진에서 인주까지의 3단계로 나누어 건설되며, 3단계까지 모두 개통하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가 된다.

국가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횡단이 많은 노선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39호선, 45호선, 43호선, 21호선, 1호선과 철도 장항선,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을 횡단한다. 이 고속도로에는 서아산IC, 아산IC, 서천안IC, 천안JCT, 서아산 IC R-A교, 석정3교, 배방대교, 삼성교, 세교3교, 구룡2교 등 3개의 나들목과 1개의 분기점, 그리고 교량 52개(총 8.2km), 터널 5개(총 1.9km)가 건설되었다.



건설공사에 증강현실(AR) 활용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 세계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가상현실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라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별도로 제작된 부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합성한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은 사업 설명과 이해를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해 기존 지도상의 지형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설노선의 가상 이미지를 실제 시공 위치에 표시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공사 완료 전후에 시공 현장을 생생하게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충남 지역 특색을 고려한 랜드마크 탄생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충남 지역특색과 경관 디자인을 적용하여 배방대교와 현충사 지하차도가 건설되었다. 특히, 대우건설이 시공한 3공구 배방대교는 이순신 장군의 장검을 형상화한 117m 높이

의 주탑을 자랑하는 580m 사장교와 1,590m의 Bicon거터교, 360m의 프리텐션거터교로 구성된 총 2,530m의 교량을 감상할 수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2공구는 현충사 처마모양을 적용한 국내 최장 660m 고속도로 본선 지하차도가 펼쳐진다. 배방대교는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천안IC에 위치하는데, 각 고속도로를 서로 잇는 연결 도로만 12개에 달하는 거대한 분기점이 탄생했다. 이는 전국 고속도로 분기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이다. 



아산~천안고속도로 추진 현황		아산~천안고속도로 공사 개요	
2005. 06	예비타당성 조사	공사기간	2015. 12 ~ 2023. 9
2006. 12	타당성 조사	주요시설	나들목 3개소, 분기점 1개소, 교량 52개(8.2km), 터널 5개(1.9km)
2010. 07	기본설계		
2010. 10	당진~천안고속도로추진방안 수립 (아산~천안 1단계 선 추진)	사업효과	경부선 교통분산 (이용 교통량 14% 감소 예상) 물류비 절감 (연간 약 700억 원 절감 예상)
2013. 12	실시설계		
2015. 12	공사착수	시공사	대우건설(1공구, 3공구), 롯데건설(2공구), HDC현대산업개발(4공구, 5공구)
2023. 09	준공 및 개통		